

IBKS Economy Monitor

Focus on Week: 높아진 소음과 경기사이클 변화 조짐 ▶ 뉴스 심리지수와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경제성장률 기대치

경제와 시장의 소음을 계량화 해서 보여주는 뉴스심리지수의 하향 ▶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성장률 기대치 변곡점으로 연결될 가능성 주시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고 현재 2.7% 수준에 있는 시장 컨센서스도 빠르게 3%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과 경제의 소음은 지표로 보이는 성과와는 달리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나친 반도체 수출의 이면에 있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크게 높아진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 그리고 반도체 경기 정점 논란이나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치에 대한 부담 등이다. 여기에 최근 다시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험 증가나 점점 더 불가측성이 높아지는 트럼프 정부 그리고 이번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미국 중간선거 등 대외 요인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런 소음들은 기대와 우려를 만들어 내는데 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심리 변화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변화가 경기사이클의 변곡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이벤트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뉴스심리지수(한국은행 발표)다. 최근 뉴스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는 주가지수나 우려와 기대를 반영하는 뉴스들을 반영하며 진폭이 커지는 흐름이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 상반기를 고점으로 점차 하향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와 시장 주변의 소음을 계량화 해주는 뉴스심리지수의 흐름은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흐름과 매우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뉴스심리지수가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를 반영하거나 영향을 주는 뉴스들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두 지수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심리지수는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지만 우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뉴스 흐름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반도체 호황이 견인하는 주가지수가 경기선행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상관관계나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지금 정점을 통과했거나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경기선행지수 흐름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기대지수 등 선행지수 지표와 금융지표 변화를 통해 경기선행지수 흐름을 변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성장률의 변곡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추적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해와 1년 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는 흐름이다.

▶ Economist

정용택

02) 6915-5701

ytjeong0815@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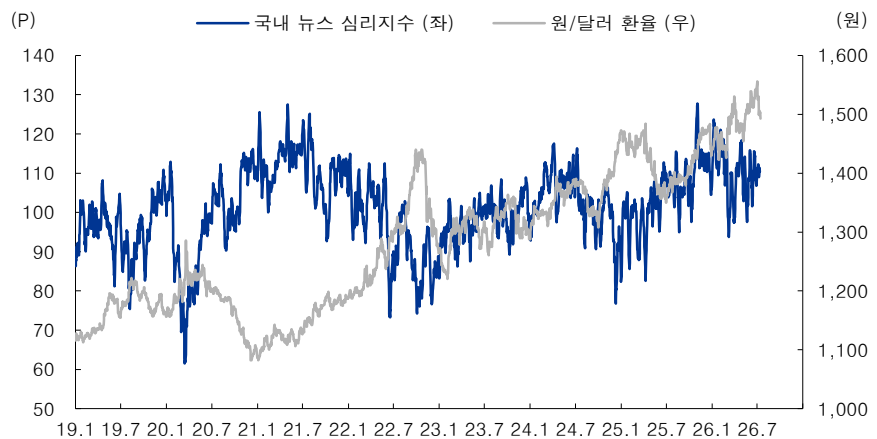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2개월 Forward 방식으로 이 흐름을 지수화해서 보면 데이터가 지나치게 늦게 발표되는 실제 경제성장률 흐름을 선행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관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이 경제성장률 기대치 변화를 1~4개월 정도 선행해서 보여준다.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호황을 뒤따라가며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여 주지만 최근 뉴스심리지수의 흐름은 경제성장률 기대치의 변곡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금 보이는 경기나 금융시장 관련 여러 가지 소음은 하반기 이후 경기변곡점을 대비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와는 방향이 다른 미국 뉴스심리지수 ➡ 하반기 대외자금 유출입과 환율에 부정적인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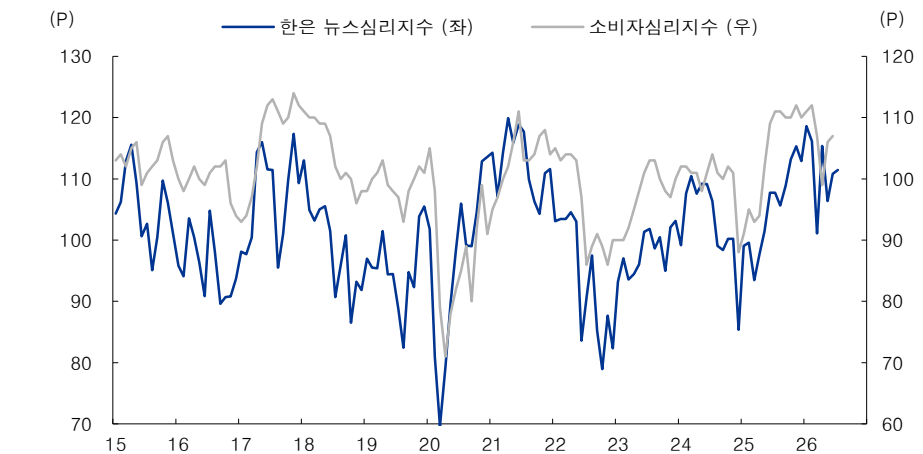
뉴스심리지수와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경제성장률 기대치의 변화가 갖는 관계는 미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뉴스심리지수로 계량화되는 여러 가지 소음이 경기선행지수 흐름 변화로 이어져 경기사이클 변화를 예고해 주고 이후 실제 경제성장률 변화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다만, 최근 미국 뉴스심리지수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하향 전환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올해 3월과 4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정책과 갑작스러운 이란과의 전쟁으로 크게 놀려 있던 투자심리가 돌발적인 상황에 조금은 익숙해지고 전쟁 이슈도 최악은 지났다는 생각 그리고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이후는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서 보면, 이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잠시 주춤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엇갈리는 흐름은 투자 흐름과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반기 내국인의 대외투자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그림 1. 최근 뉴스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는 주가지수나 우려와 기대를 반영하는 뉴스들을 반영하며 진폭이 커지고 추세적으로는 하향 전환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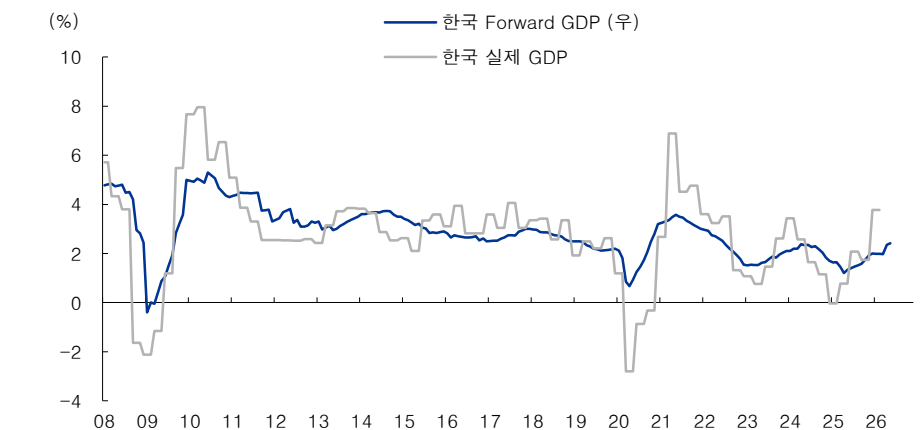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2. 경제와 시장 주변의 소음을 계량화 해주는 뉴스심리지수의 흐름은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흐름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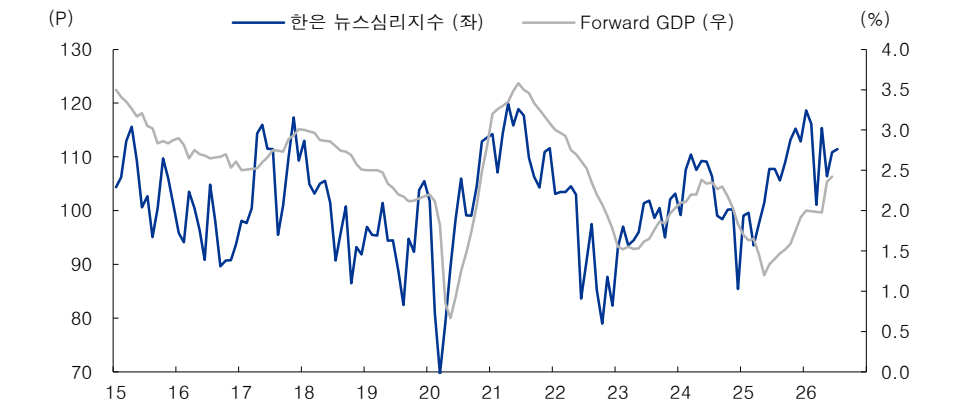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OSIS, IBK투자증권

그림 3.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추적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해와 1년 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는 흐름 ▶ 후행성을 보완하고 추세적 흐름이 일치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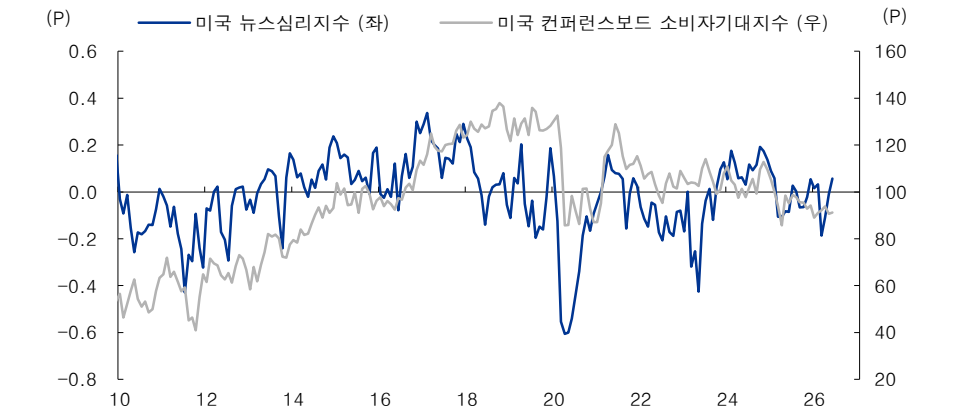
자료: KOSIS,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4.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대지수 등 선행지표와 금융지표 변화를 통해 경기선행지수 흐름을 변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성장률의 변곡점을 암시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5.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하향 전환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뉴스심리지수는 올해 3월과 4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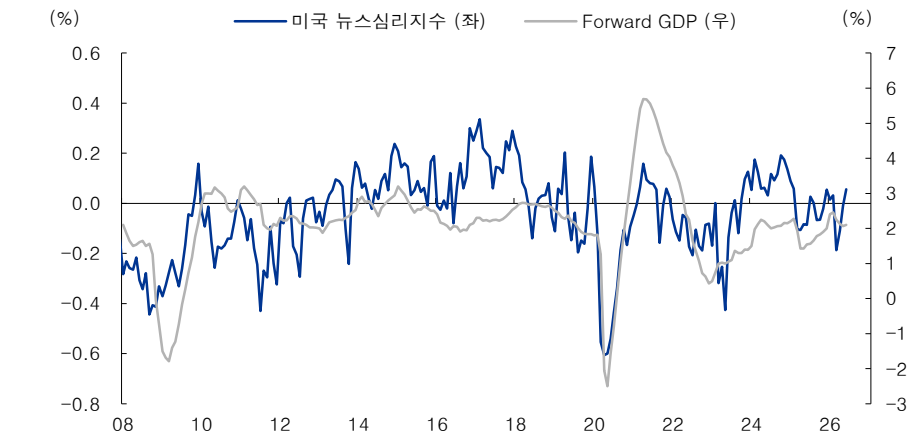
자료: SF Fed,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6.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상승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자료: SF Fed,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7. 미국 뉴스심리지수 반등은 경제성장률 기대치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커 보임



자료: SF Fed, Bloomberg, IBK투자증권